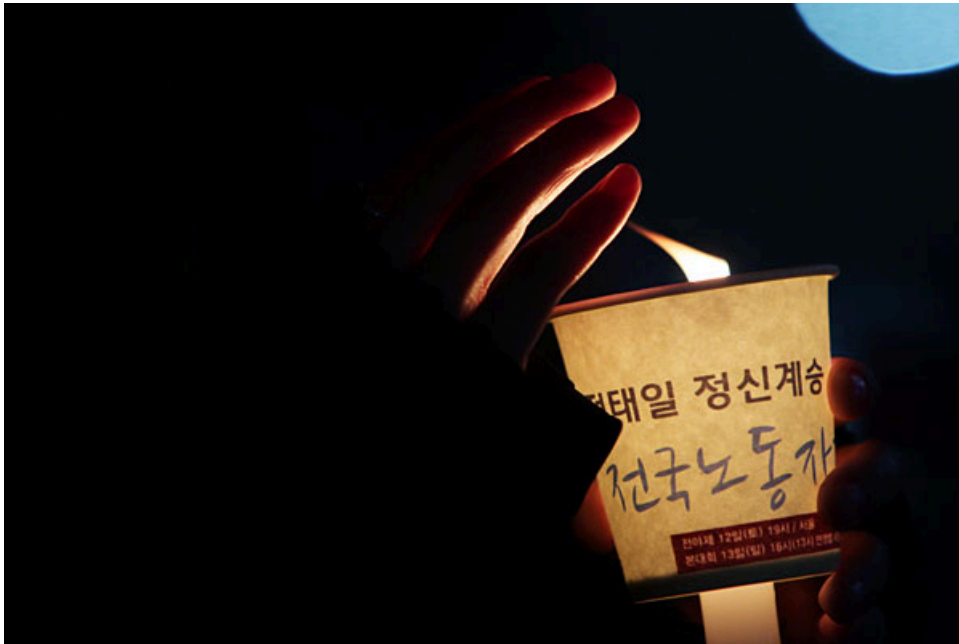


촛불을 든 우리가 희망이다

✎ 이명익 기자 | ⓒ 승인 2011.11.18 16:51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강행 처리 앞두고 계속되는 한미 FTA 반대 촛불 시위



▲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다. 이명익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안 처리 반대 촛불문화제'참가자가 '한미 FTA 저지'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다.이명익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기륭 전자 조합원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기륭 전자 조합원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환한 표정으로 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경찰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반대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해산을 위해 경찰을 투입하자 예수살기 최현국 목사가 경찰사이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명익 기자 lmi1230@nate.com